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 光日春秋



박경훈  
창원대 환경공학과 교수

최근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9~24세 청소년 인구 비율이 지난 1978년 36.9%에서 2014년 19.5%으로 감소했고, 2060년에는 10명 중 1명인 11.4%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2014년 기준 총인구의 12.7%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고, 2026년에는 그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초고령화 시대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지만, 그 시대를 이끌고 살아가야 할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다른

## 고령화 시대와 청소년 친화적 도시

계층과 분야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

특히 수도권과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방의 농어촌 지역과 중도시일수록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공간과 프로그램을 찾아보기 힘든 게 지금의 현실이 아닐까 생각된다.

따라서 불과 10년 정도 뒤에 펼쳐지게 될 초고령화 시대에 사회적, 경제적으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청소년들이 건강한 몸과 정신을 가지고, 자신들의 역량을 마음껏 개발하고 잠재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청소년 친화적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국가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니세프(UNICEF)는 지난 2000년부터 18세 미만의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살기 좋은 'Child Friendly Cities' 구축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1300여 개 이상의 도시가 어린이와 청소년 친화적 도시로 인증을 받았고, 우리나라는 서울시 성북구가 2013년 11

월 20일 최초로 인증을 받았다.

물론 인증을 받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는 정책적 판단과 관련 사업의 추진은 많은 도시들이 본받아야 할 모범사례라 하겠다.

유니세프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지역 사회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다양한 활동 장소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등의 노력을 어린이와 청소년 친화적 도시의 중요한 원칙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유니세프에서 강조하고 있는 청소년 친화적 도시의 모습에 비추어 볼 때, 농어촌지역과 지방의 중소도시에 대한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의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비해 문화 예술 교육환경은 그 격차가 크고 매우 열악하다. 지방의 농어촌과 중소도시 살고 있는 청소년들도 차를 타고 멀리 가지 않고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참

여하여 창의성과 감수성 등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다음으로 청소년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에 산재해 있는 각종 위험 요소를 제거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아이들의 통학로를 보다 안전하게 조성하거나, 친구들과 함께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활동공간을 학교 및 집 주변에 많이 조성하는 것 등이 그 예가 되겠다.

또한 지역의 공공재라 할 수 있는 자연 자원을 잘 보전·관리하고, 오염된 환경을 정화하는 등의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것도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과 인성을 갖추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대학 입시 위주의 경쟁적 교육환경, 스마트폰과 인터넷 보급 확대로 너무나도 쉽게 접하고 있는 유해한 매체물, 각종 범죄와 사고 등으로부터 위협받고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은 초고령화 시대로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현재의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우리들의 미래다.

### 社說

## 수요 없는 지방 산단 구조조정 시급하다

전남 도내 일선 시·군이 지역 발전을 내걸고 앓다뼉 산업단지를 조성했으나 결국 빛만 늘어날 위기에 처했다. 용지는 분양이 안 되고, 금융기관에서 벌린 막대한 차입금을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조성이 끝났거나 추진 중인 산업단지는 모두 37곳으로, 이 가운데 미분양된 면적만 2200여만㎡에 이른다. 이는 연평균 수요 면적 114만㎡의 19.6배에 달해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목포시가 지방채 98억 원, 시비 122억 원 등 220억 원을 쏟아부은 목포 세라믹산단의 경우 실제 분양률은 제로에 가깝다. 경상도 업계가 낸 계약금 1억 원이 수익의 전부라고 한다. 민간자본 1677억 원, 도·군비 45억 원이 들어간 영광 전기자동차산업단지도 분양률이 58%라고 하지만 실제 가동 중인 업체는 분양계약을 맺은 35곳 가운데 6곳에 불과하다.

지방 산단의 과포화현상은 지난 2000

년대 초 산업용지 부족 사태를 겪은 뒤 지자체들이 지역 발전을 이유로 비슷한 결국 빛만 늘어날 위기에 처했다. 용지는 분양이 안 되고, 금융기관에서 벌린 막대한 차입금을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 이전에는 자치단체장의 직책용에 따른 장밋빛 약속이 크게 작용을 했다.

산업단지만 조성해 놓고 들어올 기업이 없으면 지역적으로 큰 손실이자 그 피해는 지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전국에서 가장 재정이 열악한 도내 지자체들이 막대한 돈을 벌거나 지자체를 발행해 이자를 열세로 내야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윤 배반이다.

정부가 2년 전 마구잡이식 지방 산단 개발에 제동을 걸었지만 전남도 역시 신규 추진을 억제하고 일부 계획을 축소하거나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 지자체와 공동으로 미분양 산단의 수요 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노점상 노인들에게 자릿세까지 뜯어서야

광주 남광주시장 상인들의 횡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노점 할머니들에 게 청소년을 명목으로 자릿세를 뜯어내고, 관리비를 내지 않으면 노점을 열지 못하게 하거나 좌판까지 걷어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때문이다.

상인들에 따르면 남광주종합상가 시장상인회는 수십 년째 시장 광장주차장 내 새벽장터에서 노점상을 하는 노점상인회는 수십 년째 시장 광장주차장 내 새벽장터에서 노점상을 하는 200~300명의 노인과 영세 상인들에게 매일 1000원씩 징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유지인 푸른길공원의 옛 남광주역사 앞길 등도 관할 구역처럼 행세하며 자릿세를 챙기고 있다.

노점상들은 화순·보성·나주와 광주 인근에서 수확한 농수산물을 팔러 이른 새벽 버스와 기차 등을 타고 올라온 노인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자릿세를 내지 않을 경우 좌판도 벌이지 못하고 쫓겨날 것을 우려해 부당한 줄 알면서도 움켜쥐어자막기식으로 돈을 내고 있다. 상인회는 자릿세를 내지 않으면 펼쳐

놓은 좌판을 발로 차고 던지며 심한 욕설을 퍼붓는 경우도 예사라고 한다. 영세 노인들을 대상으로 소위 '갑질'(甲之)의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상인회 측은 시장 운영지침에 따라 관리비를 징수하고 있다는 주장이지만 광주시나 동구 조례 등에는 관리비 규정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불합법행위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관할 동구청은 손을 놓고 있다. 관리비 징수가 조례에도 없고 공유지에서마저 자릿세를 뜯고 있지만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노점상 자체가 불법이긴 하지만 40여 년간 관행처럼 운영해온 노점을 상인회가 관리토록 한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동구청이 뒤틀리게 관리비를 걷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다. 무엇보다 구청은 노점상이 상인회에 휘둘리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오죽했으면 노점상 노인들이 상인회를 '불한당'이라고 하겠는가.

### 기 고



이명중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

광주에 지난 6월 부임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계절음식점이 많다는 것이다. 딱히 미리 정해 놓지 않고 그때그때 신선한 제철음식으로 승부를 거는 것이다. 공급자는 제철에 나는 신선한 음식재료를 손쉽게 구해서 손님한테 내놓으니 좋고 소비자도 그 계절에 나왔으니 맛이 좋고 풍부한 영양소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즉, 공급자와 수요자가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상호이익(win-win)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면 청년일자리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가? 계절음식처럼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좋아하는 방향은 없을까? 대부분의 청년들은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 등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를 선호한

## 계절 음식과 청년 일자리

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자리는 그 수가 많지 않아 지역에서 다 수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일자리를 얻기 위해 청년들이 타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최근 3년간(2010년말 대비 2013년말 현재) 광주지역의 연령별 인구 구성비 변화를 보면 30대 이하 인구는 감소하고 40대 이상 인구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경우에는 40대 인구마저 감소하고 50대 이상 인구는 증가하여 청장년층은 줄어들고 고령층은 더욱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청년층을 잡을 방법은 없을까? 이에 대한 해답으로 계절 음식의 수요자와 공급자의 상호이익(win-win) 전략을 적용해 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 본다.

우선 청년들이 원하는 대기업, 공공기관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나주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공공기관들이 광주전남지역 청년층의 취업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광주전남지역에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이 지역 젊은이들을 고용할 필요가 있겠고 이 지역의 젊은이들도 타지생활에서 오는 높은 주거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광주시가 추진하는 기아차 100만대 생산기지 건설이 추진된다면 청년층의 일자리 확충을 위해 얼마나 좋겠는가? 현재 62만대의 생산능력이 100만대로 늘어난다면 고용면에서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이 생산능력이 늘어나게 된다면 중견기업 수준의 부품업체도 유지하게 되어 청년층의 일자리는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다.

둘째는 나주혁신도시에 들어서는 공공기관이 광주 전남지역의 지방인재 채용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다. 대안 중에는 한국은행의 지방인재 채용 방안을 원용할 수도 있겠다. 한국은행은 2010년부터 신입직원 정기채용시 지방인재 합격자의 목표인원을 설정(전향단계별 20%)하고 지방인재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할 경우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최대 10%까지 추가선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에 입행한 지방인재의 수를 보면 2010년(정기채용 전체인원 36명) 1명, 2011년(43명) 6명, 2012년(51명) 6명, 2013년(61명) 8명, 2014년(72명) 11명에 이른다.

셋째는 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를 더욱 더 채용할 수 있도록 기존 임금보다 다소 낮은 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다. 1990년대 후반 독일의 폭스바겐사는 자동차산업의 경기침체로 채용규모 축소가 불가피해지자 급속노조의 합의 등을 통해 정규직보다 임금을 21% 낮추어 약 5000명을 채용한 바 있다.

넷째, 지역의 대학들도 나주혁신도시의 공공기관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공공기관들도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입사 자격을 대학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필요시 학생들에게 인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취업을 적절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청년층이 서울에서 누리는 문화생활이나 여가선용 여건을 이 지역에서도 도입하여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머무는 수 있도록 도와 주는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겠다. 아시아 문화전당도 완성되는 단계에 이르렀으니 문화도시 광주에 걸맞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운영되면 청년층의 외부 유출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한다.

### 의료칼럼



김한수  
세계로 병원 외과원장

필자는 외과의사인데, 낙상과 관련한 글을 써달라는 부탁이 들어왔다. 사실 전공한 과와는 관계가 없진 않지만, 전문가라고 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고민이 됐다. 그러나 병원 내에서 환자안전 및 질관리 부서를 담당하고 있고, 대단한 전문가 수준엔 못 미치지만 여러 문헌도 찾아보고 가이드라인도 들여다 보는 등 나름대로 지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일단 써보기로 했다.

낙상에 대해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는데 공부를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부분도 많았고, 상식과는 다른 부분들도 있었다. 낙상이란 한자 뜻으로는 떨어져 다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낙상이라 함은 단순

## 수명 단축시키는 낙상

히 넘어져서 다치는 것을 뜻한다. 길을 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것, 계단에 걸려 넘어지는 것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낙상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실감할 수 있다.

낙상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노인에게서 잦으며 심각한 손상을 동반하거나 합병증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중 3분의 1이상이 연간 한번 이상 낙상을 경험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의 신체 손상 중 50%이상이 낙상에 의한 것이다. 손상의 형태는 머리손상(40.3%)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엉덩이 및 넓적다리 손상, 허리손상은 뇌출혈로 응급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엉덩이뼈나 대퇴골 골절, 허리뼈손상은 환자가 오랫동안 침상 생활을 하게 됨으로써 욕창이나 폐렴 합병증을 유발시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조사된 바로는 대퇴골 골절이 발생한 경우는 1년내 사망률이 20%를 넘는 등 노인들에게는 광장히 위험하다.

낙상 발생 장소는 주거시설이 61.5%, 도로 20.0%, 상업시설 18.5%로 일반 가

장점이 가장 많다. 집안에서는 미끄러운 바닥이나 계단, 화장실 바닥의 물이 주된 원인이었으며 도로에서는 물, 눈이나 빙판길, 경사진 지면에서 많이 발생한다.

낙상은 나이가 많을수록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며 주로 사지마비 등 보행 장애나 균형 장애 그리고 어지럼증이 있거나 부정맥으로 실신하는 환자들에게서 자주 발생한다. 또, 전신이 쇠약한 환자와 혈압감각제나 수면제, 이노제 등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 호흡기관과 간질발작이 있는 환자, 출혈과 관련된 빈혈이나 낙상 경험이 있는 환자가 낙상을 자주 경험하게 된다.

음주도 낙상과 관련이 있는데, 전체 낙상환원의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성에서는 18.3%로 높은 편이다. 이러한 위험인자들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실제 낙상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필자가 병원에 근무하면서 낙상 환자를 가끔 경험하는데, 상황을 분석해보면 결과가 너무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대부분의 낙상은 조금만 주의하고 관리하면 예방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예방법이 있지만 현재 대한 노인 재활의학학회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규칙적인 운동프로그램을 시작해야 한다. 운동은 낙상 위험이 높은 사람들 뿐 아니라 가능하면 모든 노인층에서 시행할 것을 권하며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 중 하나이다.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시작해서 목의 균형을 높여줄 수 있는 운동은 권하며, 점진적으로 단계를 높여가고 규칙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다. 또한 최소한 1년에 한번은 복용하는 모든 약을 확인해 불필요한 복용은 줄이도록 하며, 4가지 이상인 경우는 6개월마다 확인할 것을 권한다. 최소 1년에 한 번씩 안과 검진을 받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한다.

집 안팎의 위험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욕실에 고무판이나 미끄럼 방지 타일을 깔고 욕조나 세면대 옆에 잡을 수 있는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 등반이 없는 의자는 치우고 집안을 밝게 유지하는 것, 바닥의 물건을 잘 정리하여 걸려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 등이다.

### 無等鼓

옛날 한 아낙네가 산중에서 슬피 울고 있었다. 시아버지와 남편이 호랑이에 잡혀 죽은 데 이어 이번엔 자식마저 호환(虎患)을 당한 것이다. 지나가던 길손이 물었다. “그런데도 왜 이 무서운 곳을 떠나지 않는 거요?” 아낙이 답한다. “그래도 이곳엔 가혹한 정치가 없기 때문이지요.”

여기에서 ‘가혹한 정치’란 세금을 마구 거두어 백성을 괴롭히는 것을 말한다. 지나던 길손은 공자였다. 가경맹어호(衛政猛於虎), 세금은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말이다. ‘예기’(禮記)에 나오는 얘기가.

세금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따라붙는 불청객이다. 피하고 싶지만 결코 피할 수 없다. 한때 이러한 세금이 아름다운 건축양식을 낳기도 했다면 믿어지는가.

16년째 도입된 영국의 조세제도로 ‘장문세’가 있다. 장문의 숫자에 따라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것이다. 요즘 말로 하면 일종의 부유세다.(당시만 해도 우리장은 일종의 사치품이었다) 사람들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장문을 없애기 시작했고 이는 지금 영국의 상징적인 건축물이 됐다.

장문세를 처음 만든 나라는 프랑스

다. 1303년 필립 4세가 신실한 이후 프랑스혁명 직후 등 모두 세 차례 장문세가 시행됐다. 프랑스는 부자들이 창을 넓게 낸다는 점에 착안, 창문 폭에 비례해 세금을 물렸다. 그러자 사람들은 폭이 좁은 대신 세로로 기다란 창문을 더 많이 내는 것으로 대항했다. 오늘날 남만적인 것으로 평가받는 ‘프랑스 식 건물’은 이렇게 탄생했다.

1926년 창문세는 사라졌지만 서양에선 지금도 세금을 더 거두려고 억지로 호(衛政猛於虎), 세

만은 세목을 빚대어 창문세라고 부른다.

우리의 경우 옛그제記)에 나오는 얘기가.

나라가 들쭉였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싱글족들에게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편히 상관도 없는 골프 ‘싱글’들과 ‘돌아온 싱글’들까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농담으로 해 본 말이라며 서둘러 발뺌을 했다 한다. 하지만 빨간 싱글들의 혈압은 치솟을 대로 치솟았다. “돈이 없어 결혼을 못 하지, 누구는 뭐 안 하고 싶어 안 하나?” 그렇지 않아도 싱글들에게 가혹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희재 논설교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b>光 州 日 報</b>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申港樂</b> 편집국장 <b>奇賢鎭</b>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b>광고문의 062-227-9600</b>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F A X 222-019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96	광고매체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치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 F A X 227-9500 >	다자인실 2200-536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서울지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사회부 2200-663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대표 FAX 222-4267)		<b>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b>	